

APEC의 IT 무역 자유화 활동 동향 분석

- IT 추가 무관세화 품목 선정 등을 중심으로 -

연구원 이 은 경*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상품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역 자유화는 2000년 도하 라운드를 거치면서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 IT 산업이 대다수의 국가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IT와 무역 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통상협상의 핵심적 화두가 되었으며, IT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나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아태지역 차원에서도 IT 분야 무역 자유화를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PEC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 IT 분야 무역 자유화를 위한 활동 현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 차

I. 서 론 II. IT 분야 무역 자유화 관련 APEC 활동 개요 1. APEC TEL LSG 2. APEC CTI III. IT 추가 무관세화 품목 선정 경과 1. 배 경	2. 경 과 3. 평가 및 전망 IV. 기타 활동 V. 결론 및 시사점
--	--

I. 서 론

아태지역 무역 자유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창설된 정부간 기구인 APEC은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하여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까지 역내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보고르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회원체의 규제 및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IT가 여러 회원체의 가장 중요한 경제발전의 동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APEC 내 정보통신분야 관련 협의를 담당하는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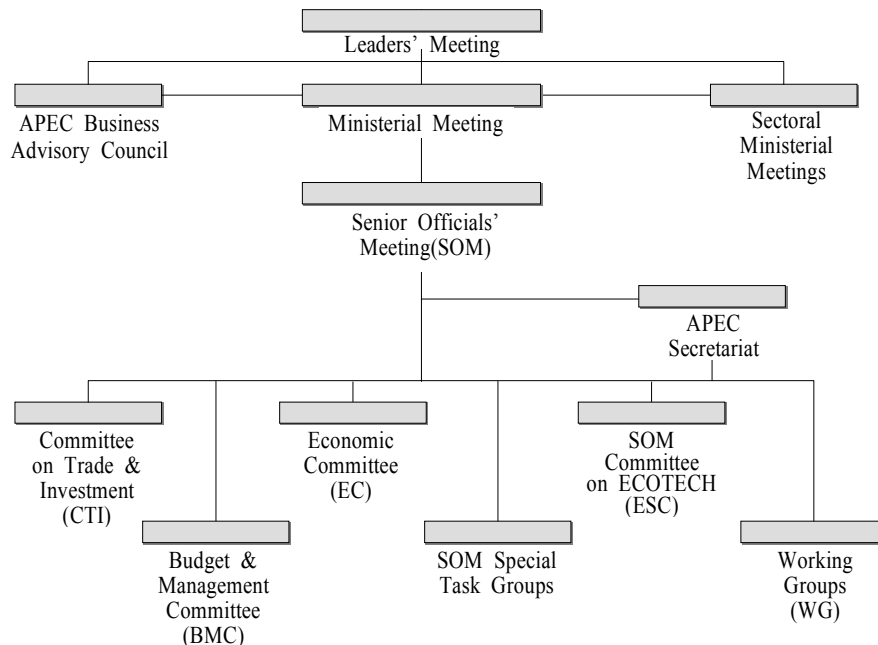
연락처: * 국제협력연구실 API협력센터 (02) 570-4436, leek@kisdi.re.kr

보통신 실무그룹(TEL)은 자유화에 관한 논의를 전담하는 자유화 운영그룹(Liberalization Steering Group: LSG)을 통하여 역내 IT 분야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APEC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활동을 담당하는 무역 및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의 시장접근그룹(Market Access Group: MAG)은 2002년 멕시코에서 APEC 회원체의 정상들이 채택한 'APEC 무역 및 디지털 경제 정책을 위한 성명'(The Statement to Implement APEC Policies on Trade and Digital Economy)을 바탕으로 지난 2004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IT 추가 무관세화 대상 품목을 선정, 승인받았으며 2005년 9월 경주에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IT/전자산업 세미나 개최를 준비하는 등 IT 분야 무역 자유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APEC 차원의 노력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IT 분야 무역 자유화 관련 APEC 활동 개요

APEC은 정상회의와 각료회의를 준비하는 고위관리회의(SOM)하에 무역 및 투자 위원

[그림 1] APEC 구조



자료: APEC 웹사이트(<http://www.apec.org>)

회,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ECOTECH¹⁾ 고위관료 위원회(The SOM 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SC)를 두고 있으며, 이중 무역투자 위원회에서 APEC 역내 무역 자유화와 관련된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그 외 11개의 분야별 실무그룹²⁾에서도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IT 분야 역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관한 일반 사항은 CTI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APEC TEL의 LSG에서 IT 분야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1. APEC TEL LSG

정보통신 분야를 전문적으로 협의하는 APEC TEL은 산하기구인 LSG를 통하여 IT 무역 자유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 회원체의 IT 통상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의 프로젝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으로는 WTO의 참조문서에 대한 각국의 채택 및 이행 현황을 조사, 취합하고, 각 회원체가 자국내에서 WTO 참조문서 이행을 위하여 실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 중 모범사례를 취합하여 공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각 회원체의 관련 규제 및 법률을 업데이트하고 있다.³⁾ 또한 올해 초부터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APEC 회원체 국내의 전용회선 접근성 평가' 프로젝트는 개별 회원체의 전용회선 사용 및 접근성을 검토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여 역내 경쟁적 통신시장 형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그 밖에도 LSG는 산하에 MRA Task Force를 설치하여 개별 회원체에서 통용되는 IT 기술 인증서를 타 회원체에서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인정해 주는 상호인증 협약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동일한 제품이 수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증 절차를 거

-
- 1) ECOTECH은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 역내 회원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정보 및 경험 공유, 교육 훈련 등 APEC의 공동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
 - 2) 11개의 실무그룹: 에너지 Energy, 어업 Fisheries,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산업과학기술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해양자원보존 Marine Resources Conservation, 정보통신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무역증진 Trade Promotion, 교통 Transportation, 관광 Tourism, 농업기술협력 Agricultural Technical Cooperation, 중소기업 Small & Medium Enterprises.
 - 3) Progress toward Adopting and Implementing the WTO Reference Paper, Best Practice toward Adopting and Implementing the WTO Reference paper. 자세한 사항은 '통신서비스 규제제도 일반원칙에 대한 APEC 논의동향 및 이슈 분석', 2005. 5 정보통신정책 제17권 9호 통권 370호 참조

칠 필요가 없어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년 1회 규제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규제 할 수 있도록 각 회원체의 정책 및 규제체계 마련 및 회원체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최근에는 차세대네트워크에 관한 각 회원체의 정책 및 규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얼마 전부터 본격화되었다.

2. APEC CTI

TEL LSG 차원의 활동이 보다 미시적이고 전문적이라면, CTI의 활동은 보다 거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CTI는 IT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APEC 차원에서 WTO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TI는 WTO와 공동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APEC 및 WTO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MAG에서 합의된 3개의 IT 추가 무관세화 대상 품목을 2004년 11월 개최된 각료회의에 제출, 승인 받고 이를 WTO, ITA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MAG는 2005년 APEC 정상회의(서울) 대비 고위관료회의 및 관련회의(9월 5일~14일, 경주)시 IT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IT 통상과 관련된 APEC 및 WTO의 주요 의제에 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Ⅲ. IT 추가 무관세화 품목 선정 경과

1. 배경

최근 IT 추가 무관세화 품목 선정을 주도한 기관은 CTI 산하 시장접근그룹(Market Access Group: MAG)이다.⁴⁾ MAG에서 IT 추가 무관세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APEC 정상회의가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WTO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 APEC 정상들은 역내 무역 및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APEC 무역 및 디지털 경제 정책 이행을 위한 성명'⁵⁾을 의욕적으로 채택하였

4) MAG는 CTI의 산하 기구로 1998년 관세 및 비관세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CTI에 의해 1998년 설립되었다. 통상 연 3회 개최되는 고위관료회의 사이 1회씩 개최되며, 2005년 2월 서울에서 제19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5년 5월 제주에서 제20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5) <첨부 1.>

다. 본 성명서는 2000년 브루나이에서 APEC의 정상들의 통신 및 IT 서비스 분야 무역 자유화 정책마련에 대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전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 시 관세 및 기타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APEC 회원체들이 이행해야 할 주요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IT 추가 무관세화 품목 선정은 각 회원체가 WTO ITA 위원회에 자국의 양허 일정을 제출하고, WTO 회원국이 아닐 경우 WTO 가입 및 ITA 참여를 명시한 상기 성명서의 para 15를 근거로 미국이 2003년 5월 개최된 제14차 MAG 회의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pathfinder'⁶⁾ 회원체를 중심으로 매년 이와 관련된 경과를 MAG에서 보고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 경 과

미국이 성명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작업을 제시한 제14차 MAG회의 이후에 개최된 2003년 8월 제15차 MAG 회의에서 IT 추가 무관세 품목 선정은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본 회의에서 현재 ITA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6개의 품목을 추가 관세 인하 대상으로 WTO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1> 미국 제안 6개 추가 무관세화 품목

- | |
|---|
| 1) 브로드밴드 및 관련 제품(HS 8517.50, 8528.12, 8543) |
| 2) 다단 다이반도체 칩(HS 8542/8543) |
| 3) 반도체 제조용 전자 현미경(HS 9011/9012) |
| 4) 마이크로폰 및 통신장비를 위한 수신기(HS 851810/851829) |
| 5) 폴리메릭 PTC 서미스터 서킷 보호기(HS 8533/8535) |
| 6)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HS 847989) |

미국이 제시한 6가지 제품에 대하여 일본은 '디지털 다기능 기기'를 ITA에 포함시킬 추가

- 6) Pathfinder 방식이란 APEC내 주요 이니셔티브 및 선언 등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회원 경제체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각 이니셔티브를 시범 추진(piloting)하는 방식으로 2001년 상해에서 정상들에 의해 합의된 APEC의 작업방식. 2002년 성명서 채택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브루나이,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총 16개국이 본 성명서 채택에 동의하였으며, 2003년 칠레가 참여의사를 밝힘

관세 철폐 대상 품목으로 제안하였다. 디지털 다기능 기기란 프린트, 스캔, 복사, 팩스전송, 네트워크 접속 등 2개 혹은 그 이상의 기능 수행이 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미국 및 일본이 제시한 품목들에 대하여 몇몇 회원체는 상품에 관한 명확한 분류를 위하여 HS Code를 제시해 줄 것과 동 리스트에 대한 입장이 WTO에서의 자국의 입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등 상당히 조심스럽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나, 미국은 APEC 차원에서의 리스트 선정은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WTO에 자료로서 제출될 뿐이라는 근거로 강력하게 리스트의 작성 과정을 추진하였다.

2003년 8월 미국 및 일본이 제안한 7개 항목에서 출발하여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추가로 제안한 품목을 포함, 2004년 10월 약 10여개⁷⁾의 품목이 의장 초안 목록으로 작성되어 각 회원체에 회람되었으며, 여러차례의 회람 및 회원체별 관련 기관의 검토를 거쳐 2004년 11월 칠레에서 개최된 APEC 각료회의에서는 아래 3개 품목이 최종적으로 IT 추가 무관세화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표 2> 2004년 11월 APEC 각료회의 시 최종 채택된 추가 무관세화 대상 품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멀티 칩 서킷(multi-chip integrated circuits) 2) 디지털 다기능 기기(digital multifunctional machines) 3) 모뎀(modems) |
|--|

IT 추가 무관세화 제품은 2002년 2월 미국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약 1년 반 동안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친 2004년 11월 각료들에 의해 최종 채택되었다.

2005년 2월 개최된 제19차 MAG 회의에서는 지난 2004년 11월 최종적으로 채택된 3개의 품목을 바탕으로 2005년에도 추가 무관세화 대상 품목 선정을 계속하자는데 회원국이 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추가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체와의 협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3. 평가 및 전망

2002년 2월 미국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약 2년간 진행되었던 IT 추가 무관세화 대상 품목 선정은 APEC 차원에서 추가 무관세화를 희망하는 IT 품목에 대한 List가 최초로 작성되었

7) 의장 초안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DTV, 유선전화, 전신용 기기와 영상기기, 게이더 및 항향용 기기, TV 음극선관, 전자직접회로 및 초소형 조립회로, 반도체부품 등이다.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선정 절차를 포함하여 몇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첫째로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과는 달리 회원체의 유보적인 자세로 의견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품목 선정 절차 효율화에 대한 회원국의 반성이 많았다.

또한 양적인 측면에서도 처음 10개 이상의 고려대상 품목이 회원국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축소되어 결국 총 3개 품목만이 각료회의에 상정되었으며, 3개 품목 중 모뎀의 경우, 이미 ITA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3개 품목의 List 제출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논리대로 APEC이 제시한 품목 List는 WTO에 제안되는 것뿐이며, List에 반영된 회원체들의 입장이 WTO에서 각 회원체가 견지할 입장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국 APEC 차원의 List는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 비해 그 의미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PEC 회원체들에 의해 합의되고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3가지 품목 List가 WTO ITA에 제출될 경우, 향후 ITA에서 추가 무관세화 제품 선정시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WTO 차원에서 협상이 시작되기 전 지역 차원에서 1차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친 결과, 향후 WTO 협상에서 다시 검토 될 경우, 검토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PEC MAG는 향후 추가 품목 선정에도 의욕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이므로 List 작성 작업이 반복됨에 따라 APEC 차원의 IT 추가 무관세 제품 List 작성 과정이 효율화되고, 그 의의도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IV. 기타 활동

IT 추가 무관세화 품목 선정 이외에 IT 분야 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2005년 MAG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활동으로는 2005년 9월 8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IT/전자 산업 세미나를 들 수 있다. 2005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19차 MAG 회의에서 MAG는 2005년 주요 작업 계획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를 포함시켰고,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MAG 차원에서 2002년 정상들이 'APEC 무역 및 디지털 경제 정책 이행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한 이후 IT 추가 무관세화 품목을 발굴해 왔으며, 이러한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IT 무역 자유화를 주제로 한 워크샵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회원체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본 워크샵의 주요 목적은 1) 정부 및 산업체 관련 인사들이 전자 산업의 현황 및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해 제고, 2)역내 경제 발전을 위한 전자 무역 및 전자 산업의 발전의 기여도

평가, 3) APEC/WTO 관련 정부인사와 산업체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IT/전자제품 무역 장벽 제거 및 시장 접근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4) IT 산업의 발전이 디지털 기회 확산을 통해 지식기반사회 창출에 기여한다는 이해 공유이며, IT 관련 비관세 장벽, WTO ITA 및 NAMA 협상 동향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WTO 체제 출범 이후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노력들이 국가, 지역,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무역 자유화 협상이 WTO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아태지역 차원의 무역 자유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곳이 바로 APEC 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아태지역 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IT 분야 상품 및 서비스가 주요한 산업으로 대두되면서 APEC 차원에서도 IT 무역 자유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PEC은 APEC TEL LSG, APEC CTI MAG를 통하여 IT 무역 자유화를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과 관련하여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APEC 차원 및 우리나라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PEC TEL은 IT 분야만을 논의하는 기구이며, CTI는 모든 상품의 무역 및 투자를 다루는 기관으로 각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 및 권한이 상이하다. APEC TEL의 경우, 오래전부터 독자적으로 LSG에서 IT 무역 자유화를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CTI에 보고하는 형태로 활동해 왔다. CTI의 경우, IT 분야는 CTI의 고려 대상이 되는 여러 분야 중 하나이며, 비교적 최근에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CTI에서 IT분야에 대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APEC TEL은 기존에 CTI에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CTI의 주요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세미나에 TEL차원의 대표를 보내어 TEL의 입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CTI 및 TEL의 활동을 조율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작업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IT 분야 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WTO 협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 및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APEC에서 진행되는 IT 무역 자유화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 및 일본의 경우, APEC을 WTO 협상을 위한 포석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관세인하를 원하는 품목을 적극 발굴,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PEC TEL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타 운영그룹에 비하여 LSG 활동이 가장 저조하므로, LSG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 1〉 ‘APEC 무역 및 디지털 경제 정책 이행을 위한 성명’(STATEMENT TO IMPLEMENT APEC POLICIES ON TRADE AND THE DIGITAL ECONOMY, 2002 Los Cabos, Mexico)

일반 목표

1. 디지털 경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환경에서 번성할 때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광범위한 디지털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 확산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을 활성화 할 것임
3. 전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정당한 정책 목표를 위해 필요할 경우, 그러한 규제는 개별 회원체의 국제적 양허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무역에 최소한의 규제만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4. 디지털 무역 자유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자 전송의 관세 장기 모라토리움을 지지할 것
5. 회원체는 개도국이 신경제(New Economy)의 충분한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역 및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수요 기반의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

세부 목표

6. APEC 경제체는, APEC 회원체가 아래의 디지털 경제 관련 분야에서 보유하는 동일한 정도의 개방성을 WTO 회원국이 유지할 것을 장려하는 등 디지털 경제의 무역과 관련하여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WTO 협상에 공동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에 동의함

○ 서비스 분야

7. 상해 협약에 따라 APEC회원체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다음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발굴하고 공유함: 통신 및 부가 서비스, 비디오 가입 서비스(유선, 위성 포함, 방송 제외), 컴퓨터 관련 서비스, 광고, 유통(전자 상 유통되는 상품 포함) 택배, 비디오 임대, 대여(온라인 대여 포함) 각 회원체가 전자상거래에 핵심적이라고(Critical) 인식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각 회원체는
 - (a) 해당 서비스를 공급 허가 사업자 수 제한 점진적 축소 혹은 철폐
 - (b) 아래와 관련 소유권 혹은 권한의 점진적 축소 및 철폐
 - i) 통신서비스의 국외 투자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소유권 혹은 권한
 - ii) 타 서비스 공급자의 통제 및 다수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소유권 혹은 권한
 - (c) 또는,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최소한의 예외 허용 할 것
8. WTO에서 현재 관련 분야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모든 회원체는 전자상거래에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대한 Offer를 WTO 서비스 협상시 제시할 것

9. 통신분야 경쟁적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회원체는 WTO 참조문서를 가능한 빨리 채택, 이행할 것
10. WTO 비회원국, WTO 가입 절차 단계에 있는 회원체 역시 전자상거래를 위해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한 최대한 다수의 양허 제출 및 WTO 참조문서 이행을 독려함

○ 지적 재산권

11. 지적재산권 보호 및 디지털 경제의 무역 활성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각 회원체는 WTO TRIPS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것
12. 회원체는 WIPO 저작권 협약 및 WIPO 실연음반조약(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이행할 것. 회원체가 WIPO의 회원국이 아닐 경우, 상기 조약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입 혹은 이행 단계에 있는 회원체의 경우, 관련 검토 작업을 최단시간내에 마무리할 것을 공약 할 것
13. 회원체는 적절한 감독체계를 통하여 자국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혹은 기타 콘텐츠의 사용을 확보할 것
14. 각 회원체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불법 및 위조 상품의 교역을 활성화 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관련 활동을 근절할 수 있는 규제 및 집행 체계를 구축할 것

○ 관세

15. 각 회원체는 WTO ITA에 참가하며, WTO ITA에 자국의 양허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할 것. WTO 비 회원국 및 가입 단계에 있는 경제체는 ITA 가입을 고려할 것
16. 회원체는 관련 정보통신상품에 관한 가능한 넓은 범위의 관세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
17. 회원체는 자국의 연도별 관세 및 무역 데이터를 WTO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할 것. WTO 비회원국은 관련 자료를 최단기간 내 APEC 관세 데이터베이스로 제출할 것

○ 향후 계획

18. 디지털 경제의 역동적 특성 및 회원체 무역정책의 발전, 성장, 창조를 위한 유인 제공을 위해 회원체 관료들은:
 - (a) 각 회원체가 본 성명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을 검토하여 2003년 장관 회의에 보고할 것
 - (b) 디지털 경제를 위하여 무역과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분야에서의 정보 공유 및 정책목표 설정을 목표로 상해 협약에서 개발된 절차를 1년 단위로 이행하고 매년 각료회의에서 보고할 것

자료: APEC 웹사이트(2002/AMM/062 Rev.1)

참 고 문 헌

- [1] Summary Record of the Meeting of the Market Access Group(14th~19th)
- [2] Joint Statement, 14th APEC Ministerial Meeting, Los Cabos, Mexico, 23~24 October 2002
- [3] Pathfinder Initiative Implementation of APEC Policies on Trade and the Digital Economy, 14th APEC Ministerial Meeting, Los Cabos, Mexico, 23-24 October 2002
- [4] Joint Statement, 16th APEC Ministerial Meeting Santiago, Chile, 17~18 November 2004
- [5] www.apec.org